

“與 국회정상화 포기...7월 임시국회 소집”

민주 단독 원구성 시사 최후통첩 “與, 진정성 전무”

“시급한 인사청문과 민생 입법서 성과 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간담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는 손뼉만 쏘고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건지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다. 이를 위해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

겠다”며 “6월 말까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싶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다수당(170석)의 힘으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을 협상 시한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보안을 거부하자 사실상 단독 국회 소집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약속 대 약속의 이행, 서로 합의 사항을 지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그대로 재반복하며 제안을 일거에 거부했다.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 입장에 선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이 곧바로 국회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단독 원구성이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급한 인사청문과 민생 주요 입법과 관련해 성과를 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국제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 문을 열려면 거쳐야 할 절차, 선결적 과제와 있다. 이 문제는 이번주에 마지막으로 여당을 설득해보고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실제 7월부터 국회 문을 열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쪽에선 집권여당을 설득하고 한쪽에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실용적으로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수권 신임 광주지검장 “인권 최우선에 둔 법 집행”



신임 이수권 (54·26기) 제66대 광주지검장이 27일 인권을 최우선에 둔 수사 와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은 헌법이 규정한 유일한 영장 청구권자로서 형사 사법의 모든 절차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감독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제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민을 울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색원해 광주의 안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 수사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역설했다.

수사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된 형사 사법 절차와 각종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일하면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장 후보 서동욱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장단 경선을 통해 4선의 서동욱 의원(순천4)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56명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 경선을 했다.

의장 경선에는 최다선(4선)인 서의원과 3선 김성일 의원(해남1)이 출마해 33표를 얻은 서 의원이 23표에 그친 김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에 뽑혔다.

이어 1부의장은 김태균 의원(영양3), 2부의장은 전경선 의원(목포5)이 각각 선출됐다.

전남도의회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체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뒤 6~7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진보당 오미화 의원(영광2)도 의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으로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2022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2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전수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임이 최선”...경찰 통제 반발

대통령실, 사표 수리 보류... “법적 절차 따를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실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런 열원에 끌리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을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문위) 권고안은 이번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해쳐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청장은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시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데에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이라고 조건을 달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尹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출국

다자외교 데뷔전...회의서 북한 비핵화 지지 당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첫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1시 52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분홍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흰색 긴팔 원피스 차림이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의 환송을 받고 1시54분경 전용기에 탑승했다.

같은날 늦은 오후(이하 현지시간) 마드리드에 도착하게 되는 윤 대통령은 오는 28~30일 현지에서 숨겨진 일정을 소화하며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서훈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 다해 조치”

“회피 의도 없어...싱크탱크 초청으로 美 체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청와대 재입 시절 발생한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실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전 실장은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위와 관계없이 발생

해서는 안될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의 미국행을 놓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며 예정된 계획에 따른 출국이라고 주장했다.

귀국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시 돌아올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뉴시스

尹 국정평가 긍정 46.6% 부정 47.7%

취임 6주만 ‘데드크로스’...긍정 1.4%p↓·부정 2.3%p↑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주 연속 하락,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표본오차 ±2.0%포인트 95% 신뢰수준)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취임 7주차) 긍정평가는 46.6%, 부정평가는 47.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7%였다.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1.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해 부정 평가가 1.1%포인트 앞섰다. 윤 대통령 취임후리얼미터

조사 이후 첫 데드크로스다. 긍정과 부정 간 차는 오차 범위 안이지만 부정 평가 상승 폭이 긍정 평가 하락폭보다 높아 부정이 앞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월 4주차에 54.1%로 최고점을 찍은후 6월 들어 52.1%→48.0%→48.0%→47.7%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5월 4주차에 37.7%에서 시작해 6월 들어 40.3%→44.2%→45.4%→46.5%로 한달 만에 6.2%포인트나 상승했다.

6월 4주차 한주 일간 지표도 좋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후리얼미터

호매민평 이태헌

이유 경제실책탓

47% 하락

지지율 53%

문정부 경제 다실책탓이야

공정! 상식

태헌

‘총선 교두보’ 민주당 광주서구를 지역위원장 경선 치열

4명 경쟁... 김경만·양부남·이남재·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2024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이 몰리면서 경선이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이 최근 광주서구을과 광산을 등 광주 8개 지역위원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다.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서구을은 김경만 비례대표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정무수석,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 4명이 응모했다.

예상대로 광주서구을은 차기 총선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위원장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배 의원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탈당한 광주광산은은 응모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이 복당하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는 나머지 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는 현역 중심으로 단수 응모한 것으로

전해됐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지역위원장 공모 접수자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 및 경선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선 성격으로 경선이 치열하다”면서 “4명이나 응모한 광주서구을에 대해 조강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